

칼뱅과 번역

Calvin and Translation

박건택 교수 (개혁신학연구센터원장)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칼뱅의 자기 번역 1.1. 두 언어를 통한 계시 해설가 1.2. 칼뱅의 라틴어/불어 텍스트 목록 2. 칼뱅의 한글번역 사료편찬 2.1. 기독교강요 2.2. 소품문학, 신학, 교회/학교 교육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3. 주석과 설교 2.4. 서간집 3. 칼뱅의 번역 패러다임을 찾아서 3.1. 칼뱅과 현대번역 이론 3.2. 칼뱅의 번역 패러다임 4. 결론 |
|---|---|

1. 칼뱅의 자기 번역

1.1. 두 언어를 통한 계시 해설가

칼뱅은 평생 라틴어와 불어로 글을 썼다. 비록 그가 성직자의 길을 준비하면서 라틴어를 배웠지만¹⁾ 정작 그의 관심은 성직자의 라틴어가 아닌 인문주의 라틴어였다. 그가 계속 신-라틴어 Neo-latin을 갈고 닦으면서 자유롭게 이 고상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역시 그의 모국어는 불어였다. 그가 인문주의 라틴어로 글쓰기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종교개혁에 가담하는 순간부터 라틴어 글쓰기와 동시에 불어 글쓰기를 시도했으며,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번역도 병행했다. 당시의 유행에 따라 라틴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구상한 것이다. 그런데 칼뱅의 번역 관심 대상은 키케로나 세네카의 텍스트가 아니라 고대 교부의 텍스트에 있었다. 칼뱅은 그의 최초의 번역 대상을 **크리스스토무스의 설교집**으로 선정했고²⁾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크리스스토무스를 택한 이유는 이 문제에서 보여줘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녕 으뜸가는 해설가를 언급하는 것이 합당한바, 예를 들어 이런 종류의 서적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를 선호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나의 선택 이유에] 부합하는 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 해석은 첫째가는 이유가 되는데, 이점에서 크리스스토무스가 오늘날 눈에 띄는 우리의 모든 고대 작가들을 능가했다는 것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³⁾

하지만 칼뱅은 어떤 이유에선지 이 시도를 이내 그만 두었다. 그리하여 그가 1538년 여름에 작성한 크리스스토무스 설교집 불어역본 헌정서한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교부들에 대한 번역 관심은 곧바로 성경주석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고 1539년에 나오는 로마서 주석은

그 출발점에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칼뱅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칼뱅 자신의 회심 동기가 되는 노예의지의 수용이,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교부의 입장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친히 성경 주석에 헌신하는 쪽을 택하게 했을 지도 모른다.⁴⁾ 그럴 경우 이것은 그가 **로마서 주석**을 첫 번째 주석 텍스트로 삼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러나 그의 번역작업과 관련해서 볼 때, 이 미완성 종결은 **기독교강요** 불어번역을 위한 중단으로도 여겨질 수도 있다.⁵⁾

따라서 칼뱅의 불어번역은 그의 종교개혁 가담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은 **기독교강요** 불어역본 초판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 책을 작성했다. 나는 먼저 그것을 라틴어로 썼는데 이는 어떤 민족에 속했건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나는 우리 프랑스 민족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소원하면서, 그것을 또한 우리의 언어[불어]로 번역했다. 나는 감히 이 책을 지나치게 크게 칭찬하지 않으며 또 이것을 일고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밝히지 않겠다. 이는 내가 내 작품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과 같이 약속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책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통로를 제공하는 하나의 열쇠와 시작과도 같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⁶⁾

그가 시편을 찬송가 운율에 맞춰 번역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런 이유이다. 스트라스부르와 제네바의 목회자였던 칼뱅은 불어로 된 시편 찬송가를 만들면서(1539) 그는 초기에 클레망 마로 Clément Marot의 번역(1536)을 사용했으나 시인의 죽음(1544)으로 중단되자 직접 번역을 시도했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이 시에 있지 않음을 깨달은 칼뱅은 후계자가 될 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칼뱅의 찬송가용 시편 번역이 6편 있으나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베자는 1550년부터 마로의 뒤를 이어 이 일을 마무리 한다.⁷⁾

또한 칼뱅은 불어 성서번역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는 주로 1535년에 올리베탕 Olivétan이 번역한 성서를 활용하되, 그의 조카가 죽은 후(1538) 그의 번역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⁸⁾ 칼뱅은 1546년판 **제네바 성서** 서문에서 올리베탕의 불어번역의 수고가 크게 칭송됨을 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그의 번역이 거칠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식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듬을 뿐만 아니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부드럽게 하여 모두에게 잘 이해되도록 애쓴 인물이 발견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친히 최초의 역자의 번역에 손을 댔음을 밝힌다. 이어서 그는 "**둘째, 의미에 관해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능력과, 성경에 대해 오래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얻을 수 있었던 판단력으로, 잘못 이해되거나 왜곡되거나 너무 모호하게 번역된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부지런히 노력했다**"고 쓴다.⁹⁾

칼뱅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라틴어를 불어로 번역하거나 번역시키는 것은 1541년 이후다. **기독교강요**는 번역의 영역에서도 진정 그의 불후의 역작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칼뱅의 논쟁서들은 끊임없이 번역된다.

하지만 칼뱅이 필요에 의해 불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위해 먼저 글을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런 경우에도 그는 라틴어 독자를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칼뱅은 **기독교강요**를 포함하여 많은 계몽 서적들과 신학 논쟁 서적들을 라틴어와 불어로 쓰고 또한 그것들을 불어와 라틴어로 번역했다. 그는 성경을 라틴어로 주석했고 불어로 설교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파악한 계시의 내용을 두 언어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였던 것이다.

1.2. 칼뱅의 라틴어/불어 텍스트 목록

칼뱅이 직접 라틴어 텍스트를 불어로, 또한 불어 텍스트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로돌프 프테르 Rodolphe Peter의 노력으로 많이 알려졌다. 그의 사후 장-프랑수아 질몽 Jean-François Gilmont의 도움으로 BC(Bibliotheca Calviniana)에는 16세기에 출판된 칼뱅의 모든 저서목록이, 원 텍스트와 번역본의 출판연도뿐 아니라 간략한 배경들과 더불어 잘 정리되어 있다. 거의 모든 텍스트가 칼뱅이 살아있는 동안 두 개의 언어로 출판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칼뱅의 두 언어 사용 내용을 알아봄에 있어서 일단 주석/강의와 설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단지 라틴어나 불어로 남겨진 글들(서문¹⁰), 편지, 교회문서 등)들도 논외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학적 계몽 및 논쟁 저술과 관련해서만 조사해보기로 한다.

[1] 먼저 라틴어로 쓰고 불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보자.

칼뱅은 **기독교강요** 초판을 발췌 번역해서 **신앙교육서**(1537)를 만들었다. 또한 **두 서신**(1537) 중 제2 서신은 1554년에 발췌 번역된다. **사들레토에게 주는 답신**(1539)은 앙투안 피네가 번역하고 칼뱅이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프시코파니키아**(1542)는 1558년에야 불어로 번역된다. 파렐은 일찍부터 이 텍스트의 번역을 칼뱅에게 여러 번 요구했다. "**만일 그대가 죽은 자의 안식을 마치 수 면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에 반대하며 쓴 책을 불어로 번역해서 이 작품(재세레파 논박)에 첨가한다면... 그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일세.**"¹¹) "나는 내가 수면론자들에 대해 그대에게 요청한 것, 즉 그대가 이전에 라틴어로 썼던 것을 불어로 번역시키는 것을 바라고 답장에 추서해주기 바라다네. 그대가 더 나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그대가 달리 행동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일세."¹²) 칼뱅이 여기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세레파 논박과 리베르탱파 논박은 라틴어로 번역 출판하자(1546), 파렐은 또다시 쓴다. "**선에는 잠들고 악에는 깨어 있는 자들에 대한 그대의 날카로운 공격과 완전한 공격을 불어로 번역해야 할 결세.**"¹³) 1551년에도 칼뱅이 여전히 반응이 없고 다른 문서(Consensio mutua)의 불어역본을 내자 파렐은 또 쓴다. "**불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것은 그대가 불경한 수면론자들에 맞서 매우 확고한 추론으로 거룩하게 쓴 것(책)일세.**"¹⁴) 그리고도 7년이 더 지난 후에 나온 이 불어역본은 1545년의 수정본이 아닌 1542년을 대본으로 했으며 번역도 서툴기 때문에 칼뱅 자신의 것으로 여길 수 없다.¹⁵)

피기우스 논박(1543)은 1560년에 번역되고 **교회개혁의 필요성**(1543)은 이듬해 칼뱅 자신의 손으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트렌트 공의회 법령과 해독제**(1547) 역시 1548년 칼뱅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보이는 바, 번역본은 원문과 순서가 다를 뿐 아니라 문체도 보다 거칠고 새로운 말장난과 트렌트 교부들에 대한 일화도 첨가된다. 칼뱅은 **스캔들론**(1550)을 같은 해 직접 번역했다. 그는 파렐에게 "약간의 시간이 <스캔들론>의 프랑스어 텍스트로 사용되었다"고 썼다.¹⁶) 따라서 불어판은 단순한 역본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자유로운 글쓰기를 보여준다. **예정론**(1552)은 같은 해 번역되었다.

세르베투스/삼위일체 논박(1554)은 같은 해 칼뱅 자신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보이며, **취리히 합의와 해설**(1555)은 베스트팔에게 주는 첫 번째 응답으로 같은 해 칼뱅이 번역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번역문을 점검했다. 콜라동은 칼뱅이 "라틴어와 불어로 작성했다"¹⁷)고 말한다. 실제로 불어역본은 라틴어를 문자대로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리히 목사들의 개입으로 수정된 라틴어 텍스트보다 훨씬 논쟁적인 음색을 띤다.¹⁸)

[2] 이어서 불어로 작성되고 라틴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살피자.

칼뱅은 **기독교강요 초판**(라틴어)을 불어로 요약하여 **신앙교육서**(1537)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신앙교육서는 다시 라틴어 역본으로 만들어져 제1 카테키스무스(1538)가 되었다. 올리베탕 신앙성서 서문을 제외하고 실제로 칼뱅이 불어로 작성한 최초의 글은 **성만찬 소고**(1541)다. 불어 텍스트의 작성 시기는 1537-1539년경이고 니콜라 데 갈라르(Nicolas des Gallars)가 라틴어로 옮긴 것은 1544년 말이다. 칼뱅은 1546년의 한 편지에서 "**무지한 자들에 적합한 소박하고 대중적인 교육방식은 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쓴다. 또 다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라틴어 글과 불어 글의 스타일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선 보다 공을 들여서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간단히 요약해줄 뿐 아니라, 그것을 명백하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¹⁹⁾ 칼뱅이 두 번째로 주해한 **유다서 주석**(1542)이 불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의외다. 이 주석은 훗날(1551) 보다 촘촘하게 라틴어로 작성되는데, 따라서 그의 문체 사용방식에 따라서 볼 때 불어로 된 유다서 해설은 설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²⁰⁾

칼뱅은 1543년에 **성해론**을 불어로 작성했다. 니콜라 데 갈라르는 이것을 1548년에 라틴어로 번역한다. **재세레파 논박**(1544)/**리베르탱파에게 주는 해명**(1545) 역시 1546년 니콜라 데 갈라르에 의해 번역이 되었는데, 역자는 서문에서 자신의 번역 이유가 칼뱅의 불어 선택의 발전에 있음을 밝힌다.²¹⁾ 1549년에 작성된 **점성술에 대한 경고**는 같은 해에 번역되었다. 프랑수아 오망(François Hotman)은, 그가 이 논문의 라틴어 역본 서문(로랑 드 노르망디에게 주는 헌정 서문)에서 언급하듯이, 자신이 이 논문의 작성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직접 칼뱅의 프랑스어 구술을 받아 적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칼뱅이 썼다고만 하는 만들어냈다고 밝힌다. 또한 그는 라틴어 번역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라틴어는 프랑스어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통역자(interpres)의 역할을 하리라고 여겼다. "**나는 이 경고가 모두에게 유익하고 우리 언어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이 소품을 라틴어로 번역할 결심을 했다. 이와 같이 이 언어가 거의 모든 종족과 민족의 통역[자]이기 때문에, [프랑스인이 아닌] 다른 이들은 이 역본을 통해, 마치 통역을 통해서처럼,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²²⁾ 칼뱅은 1549년 12월 불링거에게 오망이 로잔교회의 집사가 된 것을 알리면서 "**점성술에 대한 내 소품을 번역한 사람**"이라고 밝힌다.²³⁾

라틴어—불어	불어—라틴어
기독교강요/1536: 신앙교육서/1537[발췌]	신앙교육서(1537): 제1 카테키스무스/1538
두 서신(1537): 제2서신/1554 발췌 번역[RO#2]	성만찬 소고(1541): 1544 Nicolas des Gallars 번역
사들레토에게 주는 답신(1539): 앙투안 피네 번역, 칼뱅 수정[RO#4]	유다서 주석(1542): 1551
프시코파니키아(1542): 1558 [RO#1]	성해론(1543): 1548 Nicolas des Gallars 번역
피기우스/자유지의 논박(1543): 1560 [RO#9]	신도의 처신(1543): 1549
교회개혁의 필요성(1543): 1544 칼뱅 번역 [RO#12]	니고데모파에게 주는 해명(1544): 1549
파리신학대학신조와 해독제(1544): 1544 칼뱅 번역 [RO#11]	재세레파 논박(1544)/리베르탱파에게 주는 해명(1545): 1546 Nicolas des Gallars 번역
트렌트공의회법령과 해독제(1547): 1548 칼뱅 번역 [RO#18]	점성술에 대한 경고(1549): F. Homan 번역(칼뱅 구술)
임시안과 교회개혁의 참된 방식(1549): 1549	

[RO#20] 스캔들론(1550): 1550 칼뱅 번역 [RO#23] 예정론(1552): 1552 [RO#24] 세르베투스논박(1554): 1554 칼뱅 번역 [RO#25] 쥘리히 합의 해설(1555): 1555 칼뱅 번역 [RO#26]	
---	--

2. 칼뱅의 한글번역 사료편찬

지금까지 칼뱅이 평생 스스로를 번역한 내용을 다뤘다면, 이제는 제네바 종교개혁자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필 차례다. 하지만 여기는 유럽의 여러 언어로 번역된 사료편찬을 다루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한글번역과 관련해서만 언급하겠다.

필자가 칼뱅 저서들을 하나로 묶어 전집류로 번역할 생각을 가지고 소품집, 설교집, 서간집으로 구분하여 시작하지 어언 20년이 흘렀다. 그 사이 칼뱅의 소품들을 번역하여 하나로 모은 <칼선>이 7권으로 완성되었고 두 권의 칼뱅 설교집이 나왔다. 혼자서 하기에 무모한 이런 시도는 한글로 된 칼뱅 텍스트 모음집이 비록 전집opera omnia은 못되어도 선집opera selecta 정도라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뤄졌다. 사실 Calvini opera(CO)가 59권으로 만들어진 것도 1890년대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CO를 교정하는 작업(Calvini opera recognita=COR)이 진행 중임을 볼 때 이 묶음 번역 작업이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다.

칼뱅 한글 번역을 생각한 사람이 비단 필자뿐이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사명감과 의무감 때문에,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이 일에 동참해왔다. 번역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할 것이다. 이들의 발자취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칼뱅 텍스트의 번역 역사를 추적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동안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사료편찬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것은 그들의 노고—설령 그 노고가 결과에 비해 지나치게 초라한 것이라 하더라도—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하다. 전공자의 입장에서 비전공자들의 번역참여에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비방에 앞서 전공자들의 미지근함을 먼저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나는 칼뱅이 성서를 번역한 올리베탕 편에서 한 말을 인용하고 싶다. "실로 내가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거룩한 열정이라는 장점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비방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부족을 상기하는 편이 낫다."²⁴ 아무튼 칼뱅 한글 텍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텍스트를 번역했는지 총망라해서 정리하기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손에 잡히는 대로 열거해보기로 하자.

2.1. 기독교강요

1974년까지 기독교강요는 한글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 같다. 이 "교회사적 보화"의 첫 한

글 번역은 **김문제**의 손에서 비롯되었다.²⁵⁾ 하지만 불행히도 역자는 책 출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듯하다. 책임감수를 맡았던 김의환은 서문에서 "본서가 번역 출판되는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먼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역자"를 애도했다. 비록 원문이 라틴어나 불어가 아니지만 비교적 원문의 의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십여 년 후 **생명의 말씀사**는 4명의 공동역자(**김중홍**외 3인)의 이름으로 기독교강요 한글역본을 새롭게 출간했다.²⁶⁾ Louis Battles의 영역본을 대본으로 한(역자 서문은 무엇을 대본으로 썼는지 밝히지 않음) 이 역본은 그동안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시기에 **크리스찬다이제스트**는 칼뱅의 기독교강요 초기 작업들과 최종판을 "세계기독교교전 총서"에 삽입했다. 역시 Battles의 영역본을 대본으로 한 기독교강요 초판이 **양낙홍**의 손으로 번역되었으며,²⁷⁾ **이형기**는 제네바 제1 카테키스무스를 번역하고 또 직접 최종판을 요약하여 <기독교강요 요약>을 냈다.²⁸⁾ 그리고 **원광연**은 위의 최종판 영역본을 대본으로 한(모든 각주를 생략한) 한글역본을 한 번 더 시도했다.²⁹⁾ 하지만 이후로는 칼뱅의 라틴어 원문 자체가 번역의 대상이 된다. **고영민**의 기독교강요³⁰⁾ 최종판과 **문병호**의 기독교강요초판이³¹⁾ 이 경우다. 고영민은 역자 서문에서 "평소 라틴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된 기독교강요가 하루 속히 한국교계에 출판되기를 바라면서" 친히 이 작업을 준비해온 것을 밝혔다. 문병호는 칼뱅의 라틴어 문체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한글 번역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나열한 최초의 역자다. 그는 그 특징을 다음과 다섯 가지로 말했다: 원전직역, 신학적 읽기, 개념 정리, 단어의 통일성, 원문과 번역 대조.

1974-2009년 사이에 최종판은 네 차례, 초판은 두 차례 번역 출간되었으며, 요약, 분석, 해설 형태의 기독교강요들이 여럿 출현했다. 더 이상의 번역이 필요할까? 필요는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다. 앞으로 기대되는 기독교강요는 1541년 불어 초판과 1560년 불어 최종판의 한글 번역이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칼뱅의 두 언어가 그의 저술활동과 개혁활동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라틴어/불어와 한글이 모두 살려질 수 있는 기독교강요야말로 궁극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최종 방향이 아닐까?

2.2. 소품(문학, 신학, 교회/학교 교육)

필자는 칼뱅의 문학비평, 신학논문, 교회 및 학교와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로 묶어 번역을 시작한지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7권으로 된 <칼뱅작품선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소품들의 한글 번역들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도서관과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이름들이 있다. 기독교문화협회 이름으로 나온 "칼빈총서" 속에는 몇 편의 칼뱅 번역텍스트들이 2차 자료들과 함께 섞여 있고,³²⁾ **김동현**은 칼뱅의 소품들을 단행본으로 내놓음으로써 그야말로 소품들로 만들어 버렸다.³³⁾ **김진수/김기수**는 신학논문들을 형식상(영성한 내용에 비해) 비교적 완성도 있게 묶어 번역했다.³⁴⁾ 필자의 번역도 동일한 사료편찬의 기본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다만 절반은 원문에, 절반은 영역본에 의지하면서 7권의 선집을 만들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최초로 소개된 한글역본도 몇 편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제1권: 세네카 관용론 주석

제2권: 코프의 강연/영혼수면론논박/올리베탕성서 서문/로잔회의 강론/두 서신/교회설립서안/신앙교육서/신앙고백서

제3권: 사틀레토에게 주는 답신/성만찬소고/교회법규/교리문답서/성해론/교회개혁의 필요성

제4권: 자유의지 논박

제5권: 신도의 처신/니고데모파에게주는 해명/재세례파 논박/리베르탕파 논박/

리베르탕수사에 대한 반박 서신

제6권: 파리신학대학 신조와 논박/트렌트공의회회의 법령과 논박/교회개혁의 참된 방식
점성술에 대한 경고/스캔들 론

제7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네 편의 설교/세르베투스 논박/취리히 합의와 해설
제네바 콜레주 규정/1561년 교회법규/두 고별사

2.3. 주석과 설교

칼뱅의 성경주석은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영역본을 대본으로 해서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에 의해 전권이 번역 출간되었다.³⁵⁾ 비록 이 출판물이 번역 책임자 없이 다양한 역자들의 손을 거쳐 이뤄져 저자의 문체 맛보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다소간의 오역을 감수해야했고 또 낡은 활자체로 인해 읽기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칼뱅의 주석에 목말랐던 독자들의 갈증을 해소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것 역시 근래에 라틴어 원본에 의한 번역, 아니면 최소한 영역본에 따른 충실한 번역 충동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출판사가 이에 부응했다. 그리하여 칼뱅의 성경주석 새 번역이 **규장과 크리스찬다이제스트**에 의해 출간 중에 있다. 그러나 칼뱅 텍스트의 고증본(COR)이 속속 출간되는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이 많아질 것이다(지금까지 출판된 원 텍스트는 요한복음 I/II, 사도행전 I, 로마서, 고린도후서, 바울 서신들, 히브리서, 공동서신이다).³⁶⁾

칼뱅의 **설교** 번역은 위의 소품 번역만큼이나 어지럽다. 개혁자의 설교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몇몇 선구자들의 정리 덕분에, CO와 SC에 들어 있는 현존하는 설교편수는 계산될 수 있다.³⁷⁾ 과연 이 모든 설교를 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 그 동안 일부가 영역본에 의존해서 번역되었지만 전 설교집 번역 기획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16세기 불어에 익숙하고 칼뱅에 호의적인 역자를 만나기도 어려웠지만 지불될 원고료가 마련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예레미야서와 시편119편을 틈틈이 번역하면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이 방면에 연구전담교수가 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무튼 기획된 전집 내용과 현재까지 번역된 목록을 한글 역자와 더불어 나열해 보자.

창세기(1559)	1장-11:4(1-49) 11:5-20:6(50-99)	SC, 10-1 SC, 10-2	[RTRC 번역중]
멜기세덱 이야기	14:13-24(1-3)	CO, 23, 625-740	
아브라함의 제사(1560/6)	21:32-22:14(1-3)	CO, 23, 741-784	
아굽과 예서(1560)	25:11-27:36(1-13)	CO, 58, 1-198	
신명기(1555/3/20-1556/7)	1:1-1:46(1-10) 1:47-9:29(11-68) 9:30-21:23(69-124) 21:24-32:19(125-182) 32:20-34:12(183-200)	CO, 25, 605-722 CO, 26, 1-730 CO, 27, 1-702 CO, 28, 1-720 CO, 29, 1-232	[십계명 부분 박희석 번역]
사무엘상(1561-1562)[라틴어]	1:1-12:25(1-44) 13:1-31:13(45-107)	CO, 29, 241-738 CO, 30, 1-734	
사무엘하(1562/5-1563/2)	1:1-10:19(1-87)	SC, 1, 1-767	[김동현 번역]
욥(1554/2/26-1555)	1:1-15:35(1-61) 16:1-31:40(62-118) 32:1-42:17(119-159)	CO, 33, 21-768 CO, 34, 1-724 CO, 35, 1-514	[서문강 일부 발췌번역]
시편	46:1-5(1560/5/12) 46:6-11(1560/5/19) 48:2-7(1560/5/26) 48:9-15(1560/6/9) 65:6-14(1557/5/30) 80:9-20(1551/2/8)	SC, 7, 73 SC, 7, 40 SC, 7, 48 SC, 7, 56 SC, 7, 32 SC, 7, 1	

	89:31-38(1554?)	SC, 7, 64	
	115:1-3(1545/11/4)	CO, 32, 456	
	119:1-176(1553)(1-22)	CO, 32, 481-750	[박건택 번역]
	124:1-8(1545/11/11)	CO, 32, 467	
	147:12-20(1553/11/12)	SC, 7, 8	
	148:1-9(1-2)	SC, 7, 15	
	149:4-8(1555/7/14)	SC, 7, 24	
이사야(1557)	13-29장(1-66)	SC, 2, 1-649	
	30-41장(67-133)	SC, 3	
	42-52장(134-190)	SC, 4	
히스기야	38장(1-4)	CO, 35, 517-580	
메시아 예언	52:12-53(1-7)	CO, 35, 581-688	[김동현 번역]
예레미야(1549)	14:19-18:23(1-25)	SC, 6	[박건택 번역]
예레미야애가(1549)	1:1-5(1-2)	SC, 6	
에스겔(1552-1553)		SC,	
다니엘(1552)	1:1-11:2(1-33)	CO, 41, 323-688	
	11:3-12:13(34-47)	CO, 42, 1-174	
미가(1550-1551)	1:1- (1-28)	SC, 5, 1-237	
복음서/공관복음(1559/7-1560/11)	눅1:1-마5:12/눅6:26(1-65)	CO, 46, 1-826	[박건택 번역]
마태복음	26-28장(1-9)	CO, 46, 829-954	[엄성옥 번역]
누가복음	2:1-14	CO, 46, 955-968	[엄성옥 번역]
요한복음	1:1-5	CO, 47, 461-484	[엄성옥 번역]
사도행전(1553)		SC, 8	
승천	1:1-11(1-4)	CO, 48, 577-622	[엄성옥 번역]
오순절	2:1-4, 13-24(1-5)	CO, 48, 623-664	[엄성옥 번역]
고린도전서(1556)	10-11장(1-19)	CO, 49, 577-830	
갈라디아서(1557)	1:1-5:10(1-33)	CO, 50, 273-696	
	5:11-6:18(34-43)	CO, 51, 1-136	
에베소서(1558/5-1559/5)	1:1-6:24(1-48)	CO, 51, 241-862	[배상호 번역]
데살로니가후서(1558)	1:6-10(1)	CO, 52, 221-238	
디모데전서(1554/9/16-1555)	1:1-6:21(1-54)	CO, 53, 1-658	[김동현 번역]
디모데후서(1555/4/2-1555)	1:1-4:22(1-30)	CO, 54, 1-370	
디도서(1555)	1:1-3:15(1-17)	CO, 54, 373-596	
4편의 주제설교	시편 16:3; 27:4; 27:8	CO, 8, 376-392; 409-440	
히브리서	13:13	CO, 8, 393-408	[박건택 번역]

2.4. 서간집

칼뱅 전집 가운데서 아직도 한글번역이 전혀 되고 있는 양는 분야는 서간집이다. 처음에는 H. Beveridge와 J. Bonnet가 편집한 영문판 칼뱅 선집(CSW)에 들어 있는 서간문들과 Bonnet가 따로 모은 불어 서간문들을 번역하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었으나, 워낙 오래된 출판물이어서(각기 1851, 1854에 나옴) 진행하는 동안 그 안에 수정될 것들이 너무 많아 생각을 바꿔야 했다. 게다가 그 후 출판된 칼뱅 서간집들이 칼뱅의 서신들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서신들을 망라하는 엄청 방대한 기획들이다. Herminjard는 프랑스어권역에서 1512년에서 1544년까지 교환된 종교개혁자들의 서신들을 모두 모아 9권으로 출판했으며, CO 편집자들은 1528년(이 연대는 수정됨)에서 1564년까지 칼뱅과 그가 서신교환한 자들의 편지들만 모아 총 11권의 분량을 전집에 포함시켰다(Xb-XX).

내가 번역 계획을 세우던 초기 독일에서 공부한 어떤 학생이 칼뱅 편지의 독어역본(Rudolf Schwarz편)에서 일정량을 발췌해서 번역해가지고 찾아온 기억이 난다. 보다 많은 양을 담고 싶었던 나는 그의 원고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주었고 십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원고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는 동안 나는 때로는 강의용으로, 때로는 논문용으로 틈틈이 개혁자의 편지들을 번역해왔으나 출판은 엄두도 못 내었다. 게다가 20세기 직전에 이뤄진 서간집 편찬과 역본들은 한 세기가 흘러가면서 역사가들과 칼뱅 전문가들에 의해 많

은 오류들을 지적받아야 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씩 수정 보완했다.

얼마간 틀이 잡히고 번역분량도 생겨 출판의 희망을 꿈꾸었을 때, **새 칼뱅전집(COR)**의 서간집 시리즈 1권이 출간되었고 CO를 수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칼뱅 서간집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기 시작했다. COR의 총 7시리즈 가운데 여섯 번째 해당되는 서간집 제1권(1530년에서 1538년 9월까지)은 2005년에 출판되었다. COR 서간집 편자들은 그동안 수정된 내용들을 망라하면서 실로 상당 부분을 재수정하고 있다. 어쩌면 다행히도, 내가 그동안 해놓은 노력이 크게 빛을 잃었다는 사실은 아쉽긴 하지만, 나는 그것을 참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RTRC의 이름으로 **칼뱅서간집** 제1권(1530-1538)의 출판을 앞두고 있다. 본 초청 세미나는 이 1권에 대한 마무리 작업과 후속(2권) 작업을 위한 준비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무한도전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을 통한 공동 작업으로 향해야 할 때다.

3. 칼뱅의 번역 패러다임을 찾아서

칼뱅의 두 언어는 분명 우리에게 외국어다. 우리는 오랫동안 칼뱅의 불어에 친숙하려 애썼고, 그의 라틴어는 여전히 낯설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의뢰했던 영어도 외국어다. 우리는 칼뱅을 번역해낼 수 있는가?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인 한글을 제대로 구사하는가? 물론 그 동안 이런 질문들은 무수히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우리의 학문적 사명감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아무튼 칼뱅을 한글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칼뱅 한글번역에 무슨 기준이 있을까? 일어번역과 영어번역에 의존하던 시대가 지나고 원문에 충실한 새 번역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 동안의 번역 작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다. 이것은 칼뱅 한글번역의 무슨 패러다임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 현대 번역이론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현대 번역이론은 넓게는 번역과 해석, 좁게는 직역과 의역의 문제로 귀결한다.

3.1. 칼뱅과 현대 번역이론

번역과 해석

어쩌면 우리는 칼뱅의 번역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칼뱅의 해석을 먼저 맞췄다. 서구의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이 풀어놓은 여러 해석들은 칼뱅의 텍스트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는 각자의 해석학의 틀에 맞춰 읽게 했다. 언뜻 순서가 뒤바뀐 듯한 이런 상황은 달리 보면 번역을 위한 필연의 과정일 수 있겠다. 16세기 유럽의 역사적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해석하듯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개혁자들의 텍스트들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철학/역사신학이 역사와 시간에 대한 해석학이듯이, 어떤 종교개혁자의 신학은 그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칼뱅의 신학은 칼뱅 텍스트의 해석학이다. 그런데 텍스트는 문장과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엮여 있는—가 담겨 있다. 이점에서 번역은 곧 해석이 된다. 그 결과 번역가의 과제는 리쾨르의 말처럼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텍스트로, 문화 전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즉 "폭넓은 읽기를 통해 한 문화의 정신에 깊이 침잠하면서 텍스트에서 문장으로 그리고 단어로 내려가는 것이다."³⁸⁾

하지만 이것은 양방향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꼭 순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³⁹⁾ 번역가가 번역의 욕망을 느낄 때 그는 이미 얼마간 대상문화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번역은 해석만큼 범위가 넓지 않다. 움베르토 에코는 하이데거 이래 번역과 해석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의 해석학과 계열을 지적하면서 "해석은 번역이 아니며", "해석의 우주는 번역의 우주보다 방대하다"고 말한다.⁴⁰⁾ 대상문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번역할 수는 있다. 번역할만한 완벽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번역은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상태란 불가능하기 때문에(상호 소통을 가능케 하는 순수언어의 부재 때문에), 사실상 번역 불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번역"⁴¹⁾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때 번역은 불가능해진다. 번역가는 이해하는 것을 끊임없이 회상하며 동시에 번역 불가능한 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리콰르는 이것을 "회상의 작업"과 "애도의 작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앙투안 베르만이 말한 <이국적인 것의 시련>⁴²⁾과 연결시킨다.

칼뱅을 해석하는 사람들(칼뱅에 대해 논문과 책을 쓰거나 그런 2차 자료를 번역하는 사람들)과 칼뱅 텍스트를 번역하는 사람들 모두 외국어(라틴어, 불어, 영어, 독일어)의 시련뿐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다가오는 외국 문화의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 그런데 칼뱅 해설가와 칼뱅 번역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둘을 겸하는 사람은 드물다. 일례로 플라톤 전집 역자로서 서구문명의 해설가가 된 슈라이어마허가 있다. 후설 번역가로서 서양 철학의 해설가가 된 리콰르는, 어쩌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번역가는 작업시작 때 불안감으로 망설이고 작업 내내 텍스트와 씨름하며 작업 후 불만에 빠진다고 토로한다. 그는 이 불안감, 씨름, 불만족의 내면에 번역가의 "저항"—"이국적인 것이 주는 시련을 수용 언어권에서 암묵적으로 거부하기"—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특히 자국 언어에 대한 존중심이 있을 때 생긴다. 베르만의 말대로 번역가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국어가 이국성을 담아내기를 바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의 언어가 모국어 속에 녹아들어 흔적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⁴³⁾ 여기서 나는 박형룡 박사가 개혁신학 용어들을 한글로 옮기면서 받았을 시련을 생각해 보았다...

번역의 역사에는 자국 언어 중심주의의 흐름이 있다. 번역은 문화 중심이동의 수단이었다. 즉 문화적으로 우월한 외국의 것을 자국의 언어로 옮김으로써 자국의 문화와 함께 더 큰 문화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움베르토 에코는 이 현상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라고 말했다.⁴⁴⁾ 그리스문화를 수용한 이슬람, 이슬람 문화를 수용한 중세와 르네상스의 라틴어, 고전주의시대의 불어, 그리고 현대의 영미언어가 그러했다. 인도의 불교문화는 구마라집(344-413), 길장(549-623), 현장(602-664)의 불경번역 덕택에 중국어로 꽃피우게 된다. 그에 비해 불교문화의 본격적인 한글화 작업은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서구문명의 수용은 일본보다 늦었다. 한글 창제 600년 전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했던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빨리 서구 언어를 번역함으로써 문화적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⁴⁵⁾

우리는 이제야 서구라는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 도약은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칼뱅도 한국문화에서 흡수해야 할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이런 큰 틀에서 칼뱅 번역은 곧 그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슈라이어마허의 말대로 번역가의 과제란 "독자를 저자에게 데려가기"이자 동시에 "저자를 독자에게 데려가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칼뱅을 한글 독자에게 데려가는 번역가는, 16세기 르네상스가 꽃 피우던 시기에 이 프랑스 인문주의자가 진지한 회심을 거쳐 종교개혁자가 되었다는 것, 그 배경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 근대의 출발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

국가주의의 태동 시기라는 것, 한 지역에 한 종교만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 등등, 당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가 당시의 미신과 우상숭배 앞에서 참된 경건을 어떻게 깨닫고 실천했는가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직역과 의역

번역과 해석을 좁은 의미로 말하면 직역과 의역이 될 수 있다. 단어와 문장 해독에서 번역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역자에게 저자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 없다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저자에 대한 해석학적 전제를 가지고 단어와 문장의 구조와 용례를 등한히 한다면 원문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번역사에 늘 있어온 직역/의역의 문제로 회귀한다. 사전학적 의미로 직역은 "단어 대 단어 번역에 가까운 번역"이고 의역이란 원문을 글자 그대로 쫓아가지 않는 번역(Robert)이다. 비록 조르주 스타이너가 직역/의역 논쟁이 "쓸모없는" 일이라 했지만, 직역을 지지하는 자들과 의역을 지지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어왔고 지금도 있다. 일찍이 무냉은 채색유리와 투명유리로 비유적 표현으로 직역/의역을 설명한다. 채색유리란 "우리의 존재가 즉각 눈에 들어오는 직역"을 의미하며, 투명유리란 "우리가 너무 투명하여 우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의 의역"을 의미한다. 직역이 "출발어의 언어적 특성", "원작에 묻어있는 시대의 향취", "원작과의 문화적 거리"를 철저히 존중하는 번역이라면, 의역은 독자의 가독성에 비중을 두는 번역이다.⁴⁶⁾ 지난 세기 후반 프랑스 학자 라드미랄은 이 문제가 "오늘날 열추 2천 년도 더 지난 지금 그개를 쳐든다"고 말하면서 당대의 번역 이론가들을 **원천 중심론자/출발론자**sourciers와 **목표 중심론자/도착론자**ciblistes로 나누어, 전자가 원어의 **시니피앙/랑그**에 집착한다면, 후자는 그 의미와 가치에 해당되는 **시니피에/파를**에 초점을 맞춘다고 지적했다.⁴⁷⁾ 그에 따르면 직역/의역 문제는 때에 따라 선택하는 번역방법이 아니라 번역가의 번역관 전체가 걸린 근본적인 문제다. 번역의 충실성은 **출발어**의 자구에 있거나 아니면 **도착어**의 의미에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번역이든 반드시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모든 번역가는 그것을 의식하건 안하건 간에...이 두 가지 근본 선택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고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⁴⁸⁾

그렇다면 과연 직역과 의역은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이분법적 강요사항인가 아니면 종합적인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는가? 나는 여기서 정혜용이 앙투안 베르만의 입장에서 전개하는 그의 논리를 따르겠다.⁴⁹⁾

일부 현대의 직역 지지자들은 의미중심 번역이론 속에 유럽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 식민주의라는 철학적 배경이 있음을 지적한다. 의미중심 번역은 흔히 원작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권의 흔적이 말소되고 그 자리에 자국 문화의 상징으로 채워진다. 이 사실은, 우리가 위에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라고 표현했거니와, 서구문명의 중심축의 이동으로 설명된다. 일례로 이탈리아어로 된 작품은 프랑스어나 영어로 번역되면서 문화적 상징물들이 바뀐다.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된 작품도 동일한 운명을 겪는다. 영미 작품들도 유럽으로 갈 때는 동일한 작업의 대상이 된다. 독자의 "가독성"을 불모로 이뤄지는 이런 자민족 중심주의적 번역은 아무래도 타 문화에 대한 존중심에 타격을 가하게 된다. 또한 텍스트의 특수성이 의역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원 텍스트의 언어적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다른 언어로 텍스트를 다시 쓰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두 언어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번역 행위를 잉태시키지만, 동시에 원 텍스트의 언어 형태 재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출발어의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이 번역 불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번역은

이뤄져야하고 또 실제로 이뤄진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베르만은 "글-몸 번역"traduction de la lettre을 답으로 제시한다. 이 말은 자구lettre 중심 번역이 아니라 "원 텍스트의 시스템 안에서 의미 산출에 개입하고 있는 형식 요소들을 파악하여 그것들의 의미를 일어내는 작업"이다. 단순히 **등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등가를 빌미로 사라질 수 있는 원어의 문체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결국 베르만의 제안("윤리적 번역")은, 메쇼닉("시적 번역")과 더불어, 기존의 직역론을 뛰어넘어 새로운 번역 패러다임을 탄생을 알린다. 이들은 의미상의 등가 원칙에 토대를 둔 의미 중심 번역론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의미와 형식/의역과 직역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고 있다. 종교 영역에서 주류였던 문자 중심 번역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문장 중심 번역으로 이동했다가 이제는 문장 단위에서 텍스트로 넘어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학 텍스트 번역 이론이 신학자인 우리의 칼뱅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3.2. 칼뱅의 번역 패러다임

칼뱅의 번역 패러다임을 찾는 일은 결국 그가 자신의 라틴어 텍스트를 어떻게 불어로 번역했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칼뱅 텍스트를 라틴어 우위에서 보는 입장과 기능상 동등하게 보는 입장이 있다. Francis Higman은 "고상한 라틴어"와 "저급한 불어"를 대비시키면서 칼뱅의 글쓰기에 일종의 "이탈"digression이 있다고 말한 반면, Olivier Millet는 칼뱅이 "두 손으로" (라틴어 손과 불어 손) 썼다고 말하면서 일관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 두 학자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찾아보기로 한다. Higman은 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세르베투스 논박**을 인용했고 Millet는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캔들 론**을 비교분석했다. 두 텍스트는 모두 칼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번역되었다.

3.2.1. 프랜시스 히그만과 <세르베투스 논박>

Higman은 칼뱅의 불어번역에는 일종의 이탈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히 <세르베투스의 논박>에서 칼뱅의 "토착 불어"를 지적한다.

누군가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을 가져왔는데, 그 서문에서 세르베투스는 자신이 교정자였음과 바르게 경고한 것을 자랑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독자들에게 그 땅을 마치 좋고 비옥한 것처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순전히 허풍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상인들의 경험은 그 땅이 메마르고 불모지여서 아무런 열매도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가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는 쉽게 그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다.*3) 왜냐하면 그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신에게로 돌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사기꾼임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은 선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런 신성모독을 계속해 나갔다.(*1)

그때 누군가(우리)가 그에게 유대 땅의 비옥함에 대해 이처럼 말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실로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그런 식으로 쓰지 않은 것 같군"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나는 비록 모세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따랐다고 응수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주된 잘못은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 이후의 사람들을 잘못 생각한 데 있다. 사실 이 땅이 너무도 비옥하고 풍부하여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한 이는 누구인가? [분명 누구도 모세의 입을 통해 말썬한 성령을 심히 모욕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대한 칭송을 폐기시킬 수 없다.]

게다가 나는 오늘날 보이는 대로 유대 땅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고 우매한 판단이라고 덧붙인다. 오히려 우리는 시편 107편에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끔찍한 위협을 기억해야 한다. 즉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면, 사람들의 죄로 인해 옥토

에 소금을 뿌려 불모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시 107:34]. 따라서 유대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매우 훌륭한 거울인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증인인 우리의 높으신 위정자들과 건전하고 고상한 인사들을 제외하곤 내가 말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비열한 개는 이 생생한 이치로 기가 꺾여서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를 "관둡시다, 무슨 악은 없으니까"*2)라고 했다. 비록 그에게 그의 비열함을 위장할 만한 어떤 핑계도 없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고백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Geographiae Ptolemaei cum eius praefatione	un livre de Ptolomee avec...
tantam bonitatem	comme bonne et fertile
incultam	seiche (inculte)
obmurmuraret	il gronda entre les dents
cavillum refellere	clorre la bouche
manifestus impostor	un affronteur, s'estant attribué ce qui n'estoit pas sien
subscribunt eius elogiis	ils suivent son tesmoignage [souscrire à son éloge]
teram fluere lacte et melle	ceste terre estre si grasse et abondante qu'elle couloit laict et miel
inconsiderate iudicium fieri	sottement juger et en beste
iudicium Dei	menace de Dieu (jugement)
foecundis opimisue regionibus	bonnes terres(fécond[e], région)
gravibus viris	gens de bien et notables
convicta tenebatur impietas	abbatu par si vives raisons
obscoenus	vilain(악해진 경우)
os perfuicuit	torcher son museau(주둥이)

[]의 문장은 Latin에 없다

*1 L : ergo redactus in illas angustias, recte scriptum esse defendit.

(그러므로 이런 궁색함에 빠진 채 그것이[그의 책이] 바르게 쓰여졌다고 버텼다.

F : il faut doncques contraint de maintenir un tel blaspheme, disant qu'il y avoit que bien.

*2 [화법의 전환]

L : dixit uno verbo, nihil esse illic mali.

F : passons outre, il n'y a point là de mal.

*3 [비인칭의 인칭화, 수동태의 능동태화]

이와 같이 Higman에 따르면, 칼뱅은 1541년 기독교강요에서 보여준 번역에서 훨씬 이탈된 번역기법을 사용했는바, "비유적 표현, 구어체, 직접화법, 명백한 설명, 난폭함"과 같은 민중적 요소가 늘어난 반면, 라틴어의 "우아함과 균형"은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3.3.3. 올리비에 미에와 <스캔들론>

Millet는 두 언어로 된 텍스트를 다음 세 가지(헌정서한, 본문, 특정 구절)로 비교 분석하면서 칼뱅의 불어역본의 특징을 설명한다.

[1] 헌정서한에 나타나는 관용 표현의 단순화와 감정적인 극적 과장

fuisse infaustis ominibus e natali solo
extractam, ut miserum spiritum in alieno
prope orbe deponeret(OS, II, 162).

de malheur vous l'aviez retirée du pays de
sa naissance, pour la faire cruellement mourir
en region inconnue, comme en un autre
monde(Fatio/1984, p. 48).

즉 불행히도 그대가 그녀를 고향 땅에서 끌어
내어 마치 다른 세상과도 같은 미지의 땅에서
잔인하게 죽게 했다고 말입니다(칼선 VI, 476).

infaustis ominibus
miserum spiritum deponeret

de malheur
la faire cruellement mourir...

이렇게 설명을 위해 이중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관용구를 줄여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감정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cum...bis se felicem esse clamaret. quia
nuper ex maledicto Babylonis carcere extracta,
jam ex misero etiam corporis ergastulo exitura
esset.

다음과 같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내
가 이 저주받을 바빌론 포로에서 나온 것과 곧
내 마지막 감옥에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 얼
마나 행복한지요! 아아 내가 지금 누아용에 있다
면 어찌 되었을까요! 사제들과 수사들이 내 주위
에서 그들의 모든 모독을 토해냄에도 불구하고
감히 입을 열어 내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없는 그곳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 구주께 영
광을 돌리고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내게 주는 훌륭한 권면들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2] 훨씬 단순하게 표현력이 풍부한 문체

라틴어 텍스트가 사상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면, 불어 텍스트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구체 적이다.

paulo post

au bout de deux mois

다른 높은 계층의 사람들

고위 성직자들과 기타 둥근 모자를 쓴 사람들,
귀족과 회계사들, 거대 상인들(<칼선> VI, 555, 각주
127).

조리한 값비싼 생선보다 값싼 내장에

가난한 자는 1 드니에denier로 내장을 먹고 다른 사
람은 맛있는 양념으로 잘 준비된 생선을 먹는다는 것
에(<칼선> VI, 604)

불어에는 격렬한 논쟁적인 구절들이 더 많다. 불어가 실제 현실들을 상기시킬 때 격양된다 면 라틴어는 그 출발점의 구실을 한다.

명백한 적들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교리를 공
격했던

교황주의자들이 복음을 명백히 매우 공개적으
로 훼손하기 위해서 우리 교리를 향해 토해놓는
(<칼선> VI, 599).

그런데 욕설을 퍼부을 때와는 달리 교리를 말할 때 불어는 침착한 음색을 갖는다.

Quos aeterna sua adoptione praeordinavit ad vitam, nonne doctrina, quasi porrecta manu, ducit quo destinaverat?(가르침이, 퍼신 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양자삼음에 의해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칼선> VI, 542).

Car de fait [Dieu] mene par la main à salut ceux qu'il y predestinez, leur donnant sa doctrine comme si leur tendoit la main (Fatio/1984, p. 125).

[3] 특정 구절들

[논박의 사례] 하나님이 폭군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을 논박하면서

Causantur frustra dari pracepta de moribus, frustra leges inferri, inique etiam exerceri judicia puniendis maleficiis, cum fatis regantur omnia, vel potius rotentur.

그들은 모든 일들이 운명에 의해 좌우되고 순환되기 때문에,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일이 쓸모 없고, 율법을 만드는 일이 무의미하며, 심지어 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해 판결을 수행하는 일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한다거나 사탄으로 하여금 버림받은 자들을 괴롭히도록 허락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다. 사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는 경건과 유익한 훈계를 주시고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고함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신다.

Ils alleguent que c'est en vain qu'on presche la doctrine de bien vivre, qu'on fait des loix et statuts pour regler la vie des hommes et qu'on fait tort aux malfaiteurs en les punissant, puis que tout se gouverne par necessité. Comme si le monde estoit tourné en une fosse, comme si Dieu ne conduisoit point ses esleuz par son Saint Esprit pour..., comme s'il ne permettoit point à Sathan de transporter tous les reprouvez...en sorte qu'ils demourent tousjours convaincz et inexcusables de ce qu'ils n'ont point obey à sa parole.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며 교활하게 불신하는 그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려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토아학파와 연관된 명분들의 복잡함에 대해 어리석게 이야기하거나, 세상의 정부를 별들에게 종속시키거나, 사물의 본성 안에서 필연성을 만들어 내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Je ne m'arreste pas beaucoup à remonstrer le tort que nous font nozadversaires en nous imposant que nous sommes comme les philosophes stoïques du temps passé, qui assubjectissoyent la vie des hommes aux astres, ou bien imaginoient je ne sçay quel labyrinthe de causes fatales, qu'ils appelloyent.

물론 그런 것들은 바로 세속인들이 운명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칼선> VI, 542).

Nous laissons telles resveries aux Payens... (우리는 그런 몽상을 이교도들에게 넘기는바, 하나님의 예정은 그것과 공통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교리를 비방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것 것들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은 사악한 중상모략이다)(<칼선> VI, 542, 주 102).

라틴어가 논리적으로 지적이며 압축적이라면, 불어는 강단이나 토론회에 가까운 언어와 리듬과 논증 덕택으로 보다 웅변적이 된다.

[이야기체 사례]—구약신학을 해설하며

Tempore Achaz,
아하스 왕 시절에 매우 강력한 두 왕이 예루살렘에까지 공격해왔고, 마치 두 배의 불길에 집어삼킨 듯, 전 지역은 불길에 휩싸였다.

Du temps d'Achaz, quand les roys de Sirie et d'Egypte estans alliez ensemble, après avoir pris le pais de Judée, tenoyent Jerusalem assiegée il sembloit que ce fussent deux feux allumez pour tout consumer doublement.

Annon in liberatione ista dei gloria pleno se fulgore effundit?

그런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한 광채로 넘치지 않았겠는가?(<칼선> VI, 525).

Je vous prie, en une telle delivrance, la gloire de Dieu ne reluit-elle pas comme le soleil en plein midi?(Fatio/1984, p. 104).

이야기체에서 라틴어가 보다 암시적이고 간결하며 종합적이라면, 불어는 보다 상세하다. 어떤 라틴 표현이 번역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불어는 대칭의 효과를 사용한다. 이렇게 불어 서술은 고유 특징을 갖는바, 비록 간결(brevitas)이라는 이야기법에는 덜 충실하나 라틴 서술의 극적 긴장을 잃지 않는다(Millet).

권면의 사례까지 비교분석한 뒤, Millet는 자신의 <스캔들 론>을 번역하는 불어 작가 칼뱅은, 마치 설교자가 그러하듯, 웅변가로 나타난다고 결론짓는다. 그의 요점은 이렇다.

예술가의 문체에도 불구하고 칼뱅의 라틴어는 지적인 언어로 남는다. 라틴어 표현은 항구적으로 인문주의자의 소양을 갖춘 독자를 위한 이미지, 관념, 가치의 영역으로 움직인다. 언어의 정확성, 관념 체계, 표현의 효과 등이 소통에 공헌한다. 한편 불어 표현은 독자의 경험에 접근하고 그들을 청중이라고 전제함으로써 이 치밀함을 완화한다. 이 청중에게는 격렬하거나 비장한 문체가 더 어울린다. 하나님과 인간은 역학적 관계로(은유와 움직이는 능동사) 제시된다. 불어 작가는 대립을 강조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힘주어 말하며 몇몇 근본적인 이미지를 보급한다. 이렇게 불어 텍스트는 독창적인 특징을 제시하는바, 종종 그 효과적인 리듬은 독자를 스스로 이해하도록 안내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는 Millet와 Higman이 동일하게 비교분석하는 **기독교강요**를 볼 차례다.

3.2.4. <기독교강요>

칼뱅이 탁월하게 번역 작업을 완수한 것은 잘 알려진 대로 그의 **기독교강요**이다(1541). 이 불어판 초판은 라틴어 둘째 판(1539)을 텍스트로 삼아 번역된 것이며 이후 라틴어 판이 증보됨에 따라 불어역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증보되다가(1545, 1553), 라틴어 최종판(1559)에 따라 마지막 불어역본(1560)이 출간된다. 이 텍스트들은 프랑스 문학사에도 그 찬란한 족적을 남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강요1541**는 "프랑스 웅변의 첫 기념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1560년 번역은 어떤가?

CO 편자들이 **기독교강요1560**의 칼뱅 저작설에 의문을 제기한 이래⁵⁰⁾ 여러 학자들이 불어역본 초판과 최종판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해왔다. G. Lanson은 두 책 모두 칼뱅의 역작임을 말했으나 초판이 불문학사와 언어사에 기원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에서 최종판보다 우월하다고 결론지었다.⁵¹⁾ 이에 대해 J.W. Marmelstein은 1560년판의 진정성을 더 강력히 주장하면서 최종판의 문체가 초판의 것보다 "더 명쾌하고 더 공들였으며, 더 웅변적"이라는 결론으로 향했다.⁵²⁾ 전자가 문학적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는 문헌학적 관점에 중심을 두었다.

mirabiliarios	miracleurs
ένθουσιάζονται	ces orgueilleux phantastiques
addunt praeterea	oultreplus ces Engresseurs adjoutent
se ipsi refellunt	ces Chrismateurs se confutent eux mesmes

5) anaphora(첫머리말의 되풀이) 리듬

위의 **기독교강요** 인용문의 사례

"Langue sacrilège, oses-tu opposer au Sacrement de Christ de la gresse, infecte seulement de la puanteur de ton aleine, et charmée par quelque murmure de parole? Oses-tu l'accompagner avec l'eaue sanctifiée de la parole de Dieu?"(IRC/1541[Pannier], IV, p. 81).

"Ceux..., ilz... ceux..."

이와 같이 칼뱅은 종종 라틴어를 번역한다기보다는 창조해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작품 문체의 특성은 라틴어 원문에서 비롯된다. 라틴 구문과 수사를 불어로 직접 옮기거나 각 문체의 특성을 반영시키는 시도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모방하려는 요소들을 끌어냄으로써, 라틴어 표현의 불어 번역문을 만들어냄으로써 말이다."⁵⁹⁾

Higman은 칼뱅의 **기독교강요1560**이 다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초기 모습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한다. 먼저는 당대 새로이 등장하는 번역이론이요, 다음은 칼뱅의 빈번한 공적 불어 사용이며, 마지막으로 칼뱅의 토착화된 불어가 자신의 번역서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첫째, 당대의 번역이론을 보자. Etienne Dolet에 따르면 좋은 번역자의 필수조건은 1) 온전한 원문 이해, 2) 원어와 번역어의 관용어 완전 습득, 3) 단어 옮기기에 머무르지 않고 문장에서 저자의 의도를 표현하기이다.⁶⁰⁾ 칼뱅의 비서 가운데 하나였던 Charles de Jonvilliers도 자신의 번역작업에서 문자적 번역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일종의 번역의 자유(의역)를 주장한다.⁶¹⁾ 심지어 저자의 문장이 역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Pierre Fabri는 역자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짧고 모호한 문장은 길고 명백하게, 길고 명백한 문장은 요약적으로 번역할 것을 주장한다.⁶²⁾ 칼뱅의 **기독교강요** 불어 초판에도 이미 이런 번역의 형태가 등장한다.

둘째, 칼뱅의 빈번해진 불어사용이다. 1541년 이후 칼뱅의 불어 글쓰기는 공적 연설(설교 같은)의 영향을 받는다. 칼뱅은 특히 그의 불어 문체를 발전시키는데, 그것은 라틴어에서는 매우 드문 것이다. 무엇보다도 격렬하고 상스러운 욕설이 크게 증가한다. 적대자들에게 쓰는 용어로, 돼지, 개, 원숭이, 창기, 똥 푸는 자⁶³⁾, 등등을 사용한다. 지적 논쟁보다는 개인적인 싸움을 벌이듯이 말하기도 한다. Huguet는 칼뱅이 "종종 Rablais와 다른 콩트 작가들의 언어로, 희극 작가들의 언어로 말했다"⁶⁴⁾고 지적한다. 이리하여 칼뱅은 고전과 성서에 맞게 고상한 문체로 쓰인 교리적인 문구들과 더불어, 민중의 언어로 표현된 대립 문구들을 병행한다. "그는 라틴어 저술에서보다 불어 저술에서 더 야단스럽게 독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며, 온갖 수사학적 요령을 써서 독자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감언하고 비위 맞추며 설득하고 들볶는다."⁶⁵⁾ 라틴어 저술기법이 전반적인 정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쪽이라면 불어 기법은 정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쪽이다.⁶⁶⁾ 아무튼 이후로 칼뱅의 불어 저술에는 고상한 기법과는 거리가 있는 그 시대의 민중적 이야기꾼에 속한 특성의 유입이 발견된다.

[사례] **기독교강요1560**년판

1541년판의 언어 개선의 경우

Parquoy, comme toutes revelations procedantes du Ciel ont à bon droit ce tiltre

d'estre nommées parolles de Dieu: toutesfois nous avons à reconnoistre la parolle essentielle, qui est l'origine et la source de toutes revelations: laquelle n'est subjecte à aucune mutation mais demeure tousjours en Dieu, et mesmes est Dieu(IRC/1541, II, p. 51).

Parquoy combien que toutes revelations

issues de Dieu à bon droit intitulées sa parolle, si faut-il toutesfois mettre en degré souverain ceste Parolle essentielle qui est la source de toutes revelations, et tenir pour resolu qu'elle n'est sujette à nulle varieté, et demeure tousjours une et imuable en Dieu, voire mesmes est Dieu(IRC/1560, I, xiii, 7).

Institutio/1559와 IRC/1560의 비교—삼화적이고 경멸적인 이미지화

Quae autem in usu sunt caeremoniae sub papatu, a doctrina separantur, ut homines in signis omni significatione carentibus retineant.

Or toutes les ceremonies don't on use en la Papaute n'ont ne doctrine ne signification, mais sont amusemens de petis enfans (IRC/1560, IV, x, 15).

Higman의 결론은 이렇다. 칼뱅의 불어 번역은 1545년부터 훨씬 자유로워지며 어휘나 구문에서 라틴 텍스트를 더 이상 모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생생하고 구체적인 불어로 대체한다. 지적 기준보다는 정서적 요인에 호소한다. 그리하여 **기독교강요** 불어판은 그의 다른 불어저술들에 가까워진다. 이제 문체 규범은 라틴어가 아닌 불어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1541년판 **기독교강요**는 높은 문체 수준을 갖지만 후기 판들은 이런 사상과 정서의 일치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1560년판은 민중적 요소들의 증가로 말미암아 불어 초판과의 동질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불어 초판에 비해 최종판은 16세기 불어의 미학적인 면과 종교개혁의 선전적인 면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2] Millet의 입장

Olivier Millet는 그동안의 논쟁사를 서술한 후, 칼뱅이 라틴어 문체와 불어 문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두 언어의 저자임을 말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칼뱅은 기독교강요를 라틴어로 증보 수정할 때마다 반드시 불어로도 번역했다. 특히 비서에게 구술한 것으로 알려진 최종판 번역은 개작의 수준이다. 최종판에는 그동안 쓰인 술한 논쟁서들의 번역본들이 참고되었다. 이제 칼뱅은 더 이상 1541년 당시의 초기 개혁자가 아니다. 1560년의 칼뱅은 유럽의 설교자가 되어 있었다. Millet는 최종판에서 설교자의 음성을 듣는다. 기독교강요에는 설교투인 "je vous prie"가 넘치며 일인칭 단수는 저자/역자이자 설교자이다. 객관적이고 비인칭 서식이 연사가 독자에게 말하는 투(우회적이 아니라 직접적)로 바뀐다.

Dieu a créé le ciel et les choses contenues en iceluy. Or en cela sont comprinz les espritz celestes, assavoir les Anges.

Mais devant que je commence à traiter plus à plein de la nature de l'homme, il faut entrelasser quelque chose des Anges(IRC/1560, I, xiv, 3).

Millet는 다음 6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극적인 영적 언어]- 즉각적인 효과를 추구함

souhaicter ardemment icelle sanctification

par maniere de dire avoir faim et soif de ceste sanctification(III, xx, 6)

[우주와 지상의 현실에 대한 느낌]

창조세계에 대한 표현이 1541년보다 1560년에 훨씬 더 풍부한 생동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독설]

"고상한" 언어라는 라틴어에 독설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저급" 언어라는 불어역본에 더 적합해 보인다. 그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화된다.

[1541] Que nous n'ayons donc point honte de fermer la bouche des iniques, à la manière de saint Paul [Rm. 9:20], de repliquer à l'encontre: Qui estes vous povres miserables...?
[1560추가] n'avez point honte d'embrasser le conseil de s. Augustin: Homme, dit-il, attens tu...

[표현figures의 단순화와 집요한 전개]

이렇게 비교분석을 마친 후, Millet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최종판에 첨가된 구절들은 구술적인 경향을 드러내며, 이것이 전문적인 화자의 강조점들을 문장가와 작가와 번역가의 연설적인 특징으로 대체한다. 이 구술적인 경향은 논쟁가, 독설을 품은 도덕론자, 설교자, 성서의 주해가라는 복잡성을 띤다. 충분히 획일적인 "고상한" 문체에서 보다 신경질적이고 보다 다채로운 표현으로 이동하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덜 문학적이 된다. 1541년의 대칭과 균형은, 1560년에 보다 명백하고 신랄한, 보다 생생하고 직접적인 말이 될 때, 유지되기 어렵다. 이렇게 기독교강요는 사상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문체의 영역에서도 삶의 과제가 된다. 한편으로 칼뱅은 신학 업적들(강연, 논쟁, 주해의 결과)을 끌어 들이며, 다른 한편으로 라틴어와 불어가 상호 영향을 주며 일종의 경쟁(번역의 경쟁이 아니라) 가운데서 훈련된다. 라틴어는 구어口語의 충동적이고 다채로우며 감정적인 신랄함으로 풍부해지고, 불어는 정확성, 유려함, 경제적 체계économie를 얻는다. 그리고 이 두 언어는 젊은 칼뱅이 자신의 사상을 펼쳐냈던 구조에서 떨어져 나와 그의 활동 전체를 요약하는 이 기독교강요라는 단 하나의 텍스트에서 합류한다.⁶⁷⁾

4. 결론

칼뱅의 언어 선정

청년 칼뱅의 시대는 라틴어를 지방어로 번역하는 일이 성행하던 시대다. 당시의 번역 유행은 에티엔 돌레Etienne Dolet의 책—<번역의 바른 방식> *La Maniere de bien traduire d'une langue en autre*(1540)—이 입증한다. 돌레는 좋은 번역자의 기준으로 "단어 옮기기에 머무르지 않고 문장에서 저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기술"을 들었다. 단순히 원문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모방을 말한 셈이다. 이는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의역**의 방향이요 나아가 **해석**의 방향이다. 시대는 점차 난쟁이 불어가 거인 라틴어를 올라타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라틴화 하려는 문화에 맞서 불어의 위상을 높이는 흐름에 뒤벨레Joachim du Bellay가 정점을 찍는다. 1549년에 나온 그의 <불어의 옹호와 현양>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은 이후 프랑스가 갖게 되는 자국 중심주의와 모국어 우월주의의 원천이 된다. 번역의 역사에서 이 시기(17세기 중엽까지)는 자민족 중심주의가 결정적으로 자국의 지배적인 번역 의식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랑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이런 현상은 200년 후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에 의해 재현된다).

칼뱅이 이런 번역의 흐름을 모를 리 없었고 그의 번역 역시 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라틴어와 불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칼뱅은 자신의 글을 라틴어로 쓸(번역할) 때와 불어로 쓸(번역할) 때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바 있거니와, 그는 라틴어로 쓸 때는 "보다 공을 들여서" 자신의 생각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간단히 요약해줄 뿐 아니라, 그것을 명백하고 솔직하게 설명"한다. 그렇다면 불어로 쓸 때는 어떠한가? 라틴어를 모르는 대중은 실상 "배우지 못한 자들" illiterati, "미숙하고 무식한 자들" imperiti ac rudes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어로 쓸 때 칼뱅은 "무지한 자들에게 적합한 소박하고 대중적인 교육방식"을 택한다.⁶⁸⁾ 따라서 칼뱅의 라틴어/불어 텍스트의 관계는 결코 직역에 따르는 번역관계가 아니다. 그는 전달 대상에 따라 언어 선택을 달리했으며, 그에 따른 번역도 당연히 다른 문체로 이뤄졌다. 다시 말해서 칼뱅은 자신의 글쓰기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언어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칼뱅의 사상을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번역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글쓰기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 가운데 어떤 텍스트를 선택해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텍스트 선정과 한글번역 방식

[1] 한글번역을 위한 텍스트 선정에는 일차적으로 다음의 원칙이 세워진다. 칼뱅의 원 텍스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자신이 먼저 쓴 텍스트가 첫 번째 순위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에 의해 번역된 텍스트가 두 번째가 되는 것이다. 라틴어로 먼저 쓰인 텍스트는 라틴어가, 불어로 먼저 쓰인 텍스트는 불어가 우선순위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성만찬 소고와 점성술에 대한 경고**는 불어 텍스트가 우선이다(위의 도표 참고). 반대로 **프시코파니키아, 자유의지 논박, 예정론**은 당연히 라틴어 텍스트가 우선이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선취 언어 우선이라 해서 그것이 번역어의 평가절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두 언어의 비교 번역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것은 **세르베투스 논박**이나 **스캔들론** 같이 칼뱅이 거의 동시에 쓰고 번역한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저자보다 다소 능력이 떨어지는 역자의 번역(RO에 들어 있는 일부 불어 역이건 Nicolas des Gallars의 라틴어 역이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지금까지 한글번역이 의존했던 영어 역본은 당연히 참고자료로 넘어간다. <칼뱅작품선집>의 모든 역본들은 영역본을 텍스트로 한 것(일례로 **자유의지 논박**) 외에는 가능한 한 이 원칙하에 이뤄졌다.

지속적으로 두 언어로 쓰인 **기독교강요** 한글번역 역시 그 궁극적인 방향은 라틴어/불어가 비교 설명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어로 쓰인 초판/1541과 최종판/1560의 번역도 필수적이다.

칼뱅이 라틴어로 쓴 성경주석은 우리의 번역 대상 밖에 있지만, 불어로 기록된 **설교집**은 우리의 장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 홀로 불어에서 틈틈이 번역하는 작업은 실로 느리고 지루하다. 이제 팀 번역을 꾀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해온 번역작업은 원어의 관용어/속담을 포함하는 용어/용례집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할 것이다. 설교집 번역을 위한 초청 세미나는 별도로 계획-진행될 것이다.

[2] 무엇보다도 오늘의 초청세미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칼뱅 서간집**의 제1권 번역 초벌 완료에 있다. 20여 년 전에 시작된 이 작업 역시 초기에 불어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영어 역본에 의지했다. 언어 문법/어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시도하지 못했던 원문예로의 접근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용맹스러운 돌진으로 바뀌었고 이 무모한 도전은 그 결말이자 새로운 시작에

도달했다. 문제는 언어(출발어와 도착어 모두)의 문법/어휘 능력이다. 이것 없이 번역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상당한 분량으로 남아 있고 엄청난 호기심을 자극하는 칼뱅의 편지들 앞에 있다. "편지"는 책과는 달리 문학적 장르에 속한다. 책이 학식 있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상된다면, 16세기에 편지는 특별한 경우나 당대의 사건과 인물에 채택되는 글쓰기 방식이다. 편지에서 사람들은 희로애락의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느낄 뿐 아니라 공사간의 모든 일상의 사건들을 접한다. 이렇게 기록된 편지는 어떤 구두의 형태보다도 더 힘 있는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개개인의 의견과 감정, 그리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정보로 가득하다. 칼뱅의 편지에는 신학 외에도 이런 모든 문학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문학 번역이론의 적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칼뱅의 다른 신학 서적들에는 문학적 요소들이 간간히 등장한다면 편지는 그 반대다. 이런 점에서 그의 편지는 세네카 관용론 주석과 같은 문학적 장르로 분류될 수도 있다.

어쩌면 칼뱅 역자로서 나는 이제 겨우 문법 입문 단계를 거쳐 리콤프 해석과 베르만의 몸통 번역의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나는 처음부터 칼뱅의 텍스트를 직역하고자 했다. 다른 저술들뿐 아니라 편지도 그렇게 했다. 다른 사람들의 편지도 동일했다. 심지어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을 염두에 두었다. 그 이유는 칼뱅을 인용할 때 가능한 한 그가 써놓은 언어를 한글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칼뱅의 글에 무슨 성서적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글이 갖는 문화적 냄새를 그대로 풍기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역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의역의 중요성이 자주 대두되었다. 문화적 시대적 차이로 인해 완전한 언어소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가의 가치 언어만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흘러갔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의미 전달 말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점차 폭넓은 의역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것은 칼뱅의 두 텍스트 사이의 왕복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직역/의역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리콤프의 해석과 베르만의 몸통 번역 사이의 소통의 여지가 생겼다.

나는 이 소통의 여지를 칼뱅의 자기 번역 원리에서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칼뱅 번역 패러다임은 칼뱅 자신의 번역 의도와 방식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칼뱅은 자신의 글쓰기 목적에 따라 두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칼뱅의 저술/번역의 자유로움이다. 직역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동일한 언어가 없는 한글에게 등가에 어울리는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이다. 지나치게 외국어 중심사고 사회인 우리에게 해석/의역에 열린 지평이 필요하게 여겨지며, 칼뱅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라틴어와 불어 사이에서 칼뱅이 품고 견뎌야 했던 "이국적인 것의 시련"은 오늘날 우리가 라틴어/불어와 한글 사이에서 견뎌야 할 시련이며, 우리가 타 문명권에서 번역하고 해석해야 할 시련은 칼뱅이 같은 문명권에서 번역하고 해석해주어야 했던 시련보다 더 크고 힘들 것이다.(*).

< > = <칼뱅작품선집>, 총 7권, 총신대출판부, 1998-2011.

BC = *Biblioteca Calviniana: Les oeuvres de Jean Calvin publiées au XVIe siècle*, Rodolphe Peter et Jean-François Gilmont, t. I Droz, 1991; t. II, Droz, 1994.

CO =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G. Baum, E. Cunitz, E. Reuss, 59 vols. Brunsvick, 1866-1900.

COR = *Ioannis Calvinii Opera Omnia denuo recognita et adnotatione critica instructa notisque illustrata*, Series VI, Epistolae, vol. 1(1530-1538/sep), Genève, Droz, 2005.

Higman/1970 = Francis Higman, "Calvin and the art of translation", in *Lire et découvrir: La circulation des idées au temps de la Réforme*, Genève, Droz, 1998, pp. 371-389(이 책은 F. Higman의 글 모음집으로 언급된 논문은 1970년에 쓰인 것이다).

IRC/1541 =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Jacques Pannier, Paris, 1961.

Millet/1992 = Olivier Millet, *Calvin et la dynamique de la parole: Etude de rhétorique réformée*, Paris, 1992.

RO = *Recueil des opuscles, c'est-à-dire, Petit traictez de M. Jean Calvin*, Genève, 1566 (일례로 RO#1은 RO에 실린 첫 번째 텍스트라는 의미다).

SC = *Supplementa Calviniana*,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1 vols. 1961-2002.

- 1) 라틴어를 제대로 배운 것은 콜레주 드 라 마르슈 Collège de la Marche 시절의 마튀랭 코르디에 Mathurin Cordier 에게서다.
- 2) 칼뱅은 1538년 여름에 자신의 번역 시도를 알리는 크리스스토무스 설교집 헌정 서한을 썼는데(그는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크리스스토무스 저작물 라틴어 역본을 이용하여 이 교부의 설교를 불어로 번역할 계획을 세운 듯하다), 이 서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Praefatio in editionem homiliarum Chrysostomi a domino Calvino meditatae quae tamen non extat. Interponit autem hic suum tum de Chrysostomo tum de aliis quos illi comparat ecclesiae doctoribus iudicium apposita" (칼뱅 선생이 준비한 크리스스토무스의 설교집 [불어 역본] 출판에 관한 서문. 이 사람은 어떤 때는 크리스스토무스에 대해서, 또 어떤 때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제안하며, 교회 박사들이 첨가한 견해는 그들과 그를 비교하게 한다)(CO, IX, 831; COR, VI/I, 397).
- 3) <칼뱅 서간집 I> [2013년 출간 예정] 편지 69 참고.
- 4)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서술함에 있어서, 행위 공로를 치켜세움에 있어서 과도한 그는 우리의 선택과 소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아가 값없는 공훈—소명에서 죽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을 다소간 퇴색시킵니다" (<칼뱅 서간집 I> [2013년 출간 예정] 편지 69 참고).
- 5) 번역으로만 보자면 기독교강요불어역본(1541)이 크리스스토무스 설교집 번역 계획을 대체한다고 할 수 있다 (Millet/1992, 771).
- 6) IRC/1541, p. 4.
- 7) 그리하여 1562년에 나온 위그노 찬송가는 50편(이 중 하나는 시므온의 송가)의 마로의 번역과 100편의 베자의 번역을 담고 있다(cf. P. Pidoux, *Le Psautier huguenot du XVIe siècle*, Bâle, 1962).
- 8) Jean-François Gilmont, *Le livre réformé au XVIe siècle*, BNF, 2005, p. 47.
- 9) Préface des anciennes Bibles genevoises(CO, IX, 826).
- 10) 일례로 칼뱅은 1535년 올리베탕 신약성서 서문을 불어로 썼고 기독교강요를 헌정 하는 서한을 라틴어와 불어로 거의 동시에 썼다(<칼선> II, 147-157; 158-178 참고).
- 11) 1544년 2월 22일자 편지, CO, XI, 682.
- 12) CO, XI, 699.
- 13) CO, XII, 379.
- 14) CO, XIV, 82.
- 15) RO, 1- .
- 16) CO, XIII, 656.
- 17) CO, XXI, 77.
- 18) Cf. Bernard Cottret, *Pour une sémiotique de la Réforme: le Consensus Tigurinus(1549) et la Brève*

- Résolution(1555)*, in *Annales, Economies, Sociétés, Civilisations*, t. 39, 1984, pp. 265-285.
- 19) BC, I, 102.
 - 20) BC, I, 110.
 - 21) CO, VII, xxvi-xxvii.
 - 22) CO, VII, xxxviii.
 - 23) CO, XIII, 489.
 - 24) < >, II, 156.
 - 25) 기독교강요, 총 4권, 해문사, 1974-1976.
 - 26) 기독교강요, 총 3권, 생명의 말씀사, 1986-1988.
 - 27) <기독교강요/1536>,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 28) <기독교강요 요약>,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6.
 - 29) 기독교강요, 총 3권,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30) 기독교강요, 총 3권, 기독교문사, 2006.
 - 31) <기독교강요/1536>, 생명의 말씀사, 2009.
 - 32) <칼빈의 예정론>, 기독교문화협회, 1986,
 - 33) <점성술에 대한 경고>, <성유물에 대한 비판>, <방종과 논박>
 - 34) <존 칼빈의 신학논문>, 생명의 말씀사, 1991.
 - 35) <구약 성경주석>, 신교출판사, 19; <신약 성경주석>, 신교출판사, 1978.
 - 36) Ser. 2(Opera exegetica), v. 11/1: In evangelium secundum Johannem commentarius pars prior, 1997.
Ser. 2(Opera exegetica), v. 11/2: In evangelium secundum Johannem commentarius pars altera, 1998.
Ser. 2(Opera exegetica), v. 12/1: Commentariorum in Acta apostolorum liber primus, 2001.
Ser. 2(Opera exegetica), v. 13: Commentarius in epistolam Pauli and Romanos, 1999.
Ser. 2(Opera exegetica) v. 15: Commentarii in Secundam Pauli Epistolam ad Corinthios, 1994.
Ser. 2(Opera exegetica) v. 16: Commentarii in Pauli epistolas, 1992.
Ser. 2(Opera exegetica) v. 19: Commentarius in Epistolam ad Hebraeos, 1996.
Ser. 2(Opera exegetica) v. 20: In Epistolas Canonicas, sive Catholicas Commentarius, 2009.
 - 37) Cf.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ene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Peter Lang, 1978, pp. 319-321; T.H.L. Parker, *Calvin's Preaching*, T&T Clark, 1992, pp. 153-162.
 - 38) 리콤프의 <번역론>(철학과 현실사, 2006), 137쪽.
 - 39) 일례로 한 인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분석하는 방식과 한 시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한 인물을 분석하는 방식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Cf. Lucien Febvre, *Le problème de l'incroyance au 16e siècle: La religion de Rablais*, Paris, 1942;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Oxford, 1988.
 - 40) 움베르토 에코, <번역한다는 것>, 열린책들, 2010, 341-356쪽.
 - 41) Cf. George Steiner,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Oxford, 1975/1998. 리콤프의 <번역론>, 120쪽에서 재인용.
 - 42) Antoine Berman, *L'Épreuve de l'étranger*, Paris, 1994.
 - 43) 리콤프의 <번역론>, 83쪽에서 재인용.
 - 44)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에서(박상익, <번역은 번역인가>, 푸른역사, 2006, 51-52쪽 재인용).
 - 45) 야나부 아키라(1982), <번역어의 성립>, 마음산책, 2011.
 - 46) Mounin, *Les belles infidèles*, 1955(정혜용, <번역 논쟁>, 열린책들, 2012, 40쪽, 재인용).
 - 47) 정혜용, <번역 논쟁>, 26-27쪽, 재인용.
 - 48) 상계서, 41-42쪽 재인용.
 - 49) 상계서, 49-58쪽.
 - 50) CO, III, p. xxvi.
 - 51)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Paris, 1894.
 - 52) *Etude comparative des textes latins et français de l'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de Calvin*, Groningen, 1921.
 - 53) *Untersuchungen über die lexikalischen und morphologischen Varianten in den vier französischen Ausgaben der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Dornbirn, 1960.
 - 54) Higman/1970.
 - 55) Higman이 드는 사례는 Solones isti(로마교회 사법당국), sanctae sedis responsa/apostolici tripodis oracula(교황의 법령), monachorum ventres(수도원의 느슨한 도덕)이다.
 - 56) CO, I, 1073.

- 57) " , 모독적인 입이로다! 너는 너의 악취 나는 입김과 증얼거리는 주문으로 더럽혀진 기름을 감히 그리스도의 성례에 대립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별한 물과 비교하는가?"(생명의 말씀사); "오 망령된 입아! 네가 감히 그리스도의 성례를 대적하고, 악취 나는 네 입김과 증얼거리는 주문으로 더럽혀진 기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하신 물과 비교한단 말이냐?"(크리스찬다이제스트).
- 58) 라틴어-불어 대조본인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COR, IV/V)를 참고하라.
- 59) Higman/1970, pp. 376-377.
- 60) "qu'en traduisant il ne de fault pas asservir jusques à là, que l'on rende mot pour mot"(Etienne Dolet, *La Maniere de bien traduire d'une langue en autre*, Paris, 1545).
- 61) "J'obey volontiers à cela, preferant vostre advis et jugement...à mon opinion propre, et à la fantasie de beaucoup de gens, qui n'estiment pas qu'un livre soit bien mis d'une langue en autre, si on n'observe tout jusqu'à un petit mot, sans rien laisser ny adjouster aussi"(Ch. de Jonvilliers, *Anatomie de la Messe et du Messel*, Genève, 1557, p. 5). P. Ricoeur는 <번역론>에서 번역의 자유보다는 억제 résistance를 말한다.
- 62) "quand l'on parle a grans gens et clers, l'on doibt elegamment abreger...et quand l'on parle a simple gens, l'on doibt clerement et entendiblement croistre son compte et allonger"(Pierre Fabri, *Le grand et vray art de pleine rhétorique*, Rouen, 1521). Higman의 재인용.
- 63) maître Fifi(latrine cleaner)(<니고테모파에게 주는 해명>, <칼선>, V, 67). 이런 시각에서 <두 서신>(1537)과 <니고테모파에게 주는 해명>(1544)을 비교하는 일은 흥미로울 것이다.
- 64) Hugué, *Le Langage figuré au XVIe siècle*, Paris, 1933.
- 65) Higman/1970, p. 379.
- 66) 칼뱅의 불어 작품들이 직접 저술에 의한 것도 있으나 상당수 다른 이들에 의한 번역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이 번역들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Higman의 인용문들을 인정해야 한다(일례로 *Contre les libertins* 같은 경우다).
- 67) Millet/1992, 870.
- 68)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한자/한글 관계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한글 르네상스시기에 칼뱅 같은 인물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 있어 보인다.